

흉부외과
- 봉사의 반세기 -

가천의대 흉부외과
박국양

1968-2018

대한흉부외과 50주년

**Half Century for Patients
Half Century for Future**

Surgeon의 역할?

- ✓ 수술을 잘하는 것
- ✓ 잘 가르치는 것
- ✓ 좋은 책, 논문



Good!

Best!

Excellent!



李吉女
(嘉泉)



孫文
(中山)
(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



朴國洋
(心手嘉幸)

NATO

Dr. Albert Schweitzer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원시림 속 의사 슈바이처의 치열한 휴머니즘 기록
알베르트 슈바이처 지음 | 배명자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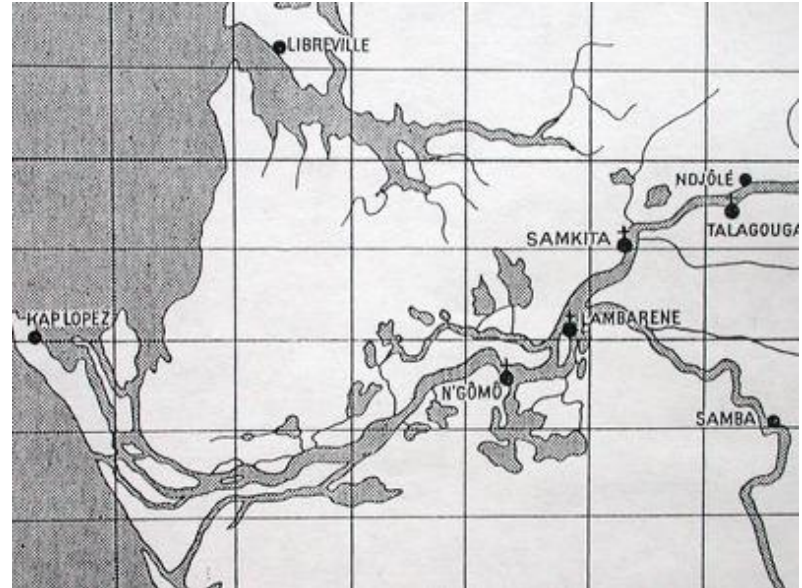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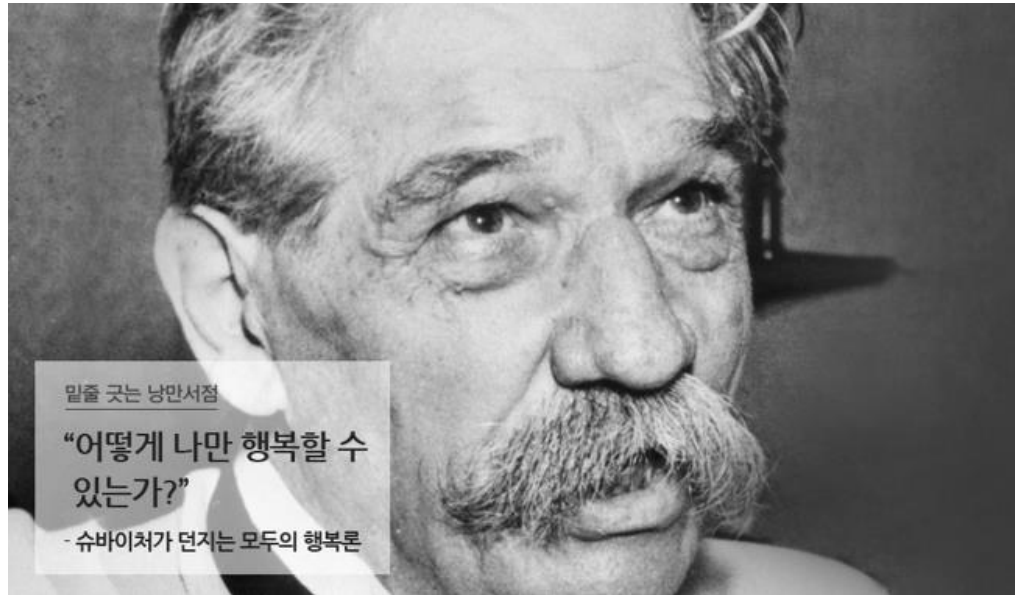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는가?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수, 바흐 오르간 연주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그가
왜 38살의 나이에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의 원시림으로 들어갔는가

21세기북스

이 초라한 세상속에서 살고 있는
단 한명의 위대한 인간 ...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지은이 알베르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1875-1965)
스트라스부르 대학 신학과의 젊은 교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1905년 30살의 나이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 그는 벌써 음악(《음악가-시인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1905), 종교(《예수 생애 연구사》 1906), 철학 방면에서 뚜렷한 학문적 성취를 거둔 학자였다. 또한 바흐의 오르간 곡 연주의 권위자였고, 교회 부목사(스트라스부르 성 니콜라이 교회, 1910)로, 신학교의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1913년 슈바이처와 그의 아내 헬레네 브레슬라우는 당시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 현재는 가봉 공화국인 된 그곳 랑바레네에 병원을 열기에 이른다. 1920년에 그는 이곳에서 활동한 사연을 모아 이 유명한 책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를 집필하였다.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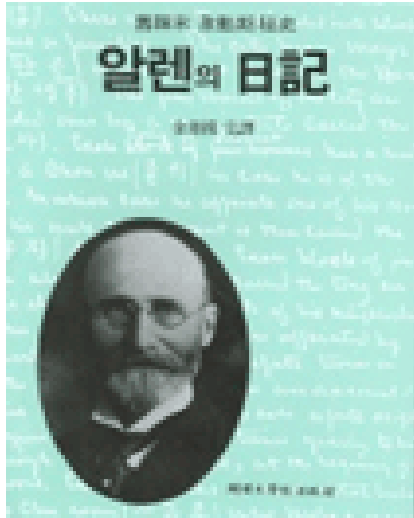


노벨상을 받으러 아프리카에서 덴마크로가는 슈바이처...
신문기자들이 특등실로 일등실로 이등실로 가보았으나 찾지를 못했다.
영국 황실 백작인 그가 이용한 곳은 3등칸...
3등칸에서 슈바이처를 찾은 한기자가 질문하였다.
'선생님, 어떻게 3등칸에 타셨습니까?'
'예, 이 기차는 4등칸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특등실에서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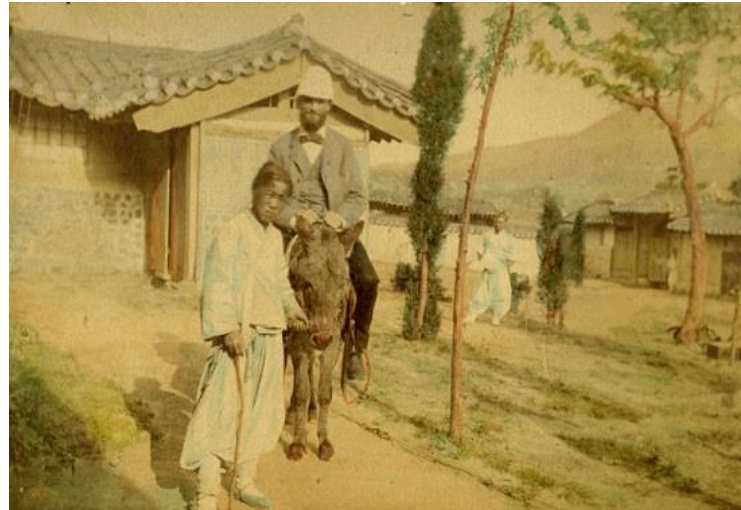
일부다처제도 다루기 까다로운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 이상주의로 무장하고 이곳에 온다. 선교사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일부다처제에 맞서 싸우며,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일부다처제를 금지시킨 지역도 많다. 한편 이곳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일

아내를 돈 주고 사는 관습을 격렬히 반대해야 할까, 아니면 허용해야 할까? 딸에게 묻지도 않고 그저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식이라면, 당연히 적극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역 전통에 따르면, 사고 싶은 여자에게 먼저 결혼 승낙을 얻은 후 정한 금액을 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관습은 기본적으로 유럽

Dr. Allen, 갑신정변, 제중원의 탄생



건국대학교에서 발행한 알렌의 일기 표지



알렌의 왕진사진



일본 체류중 촬영한 사진: (맨 왼쪽이 박영효, 그 뒤는 서관범, 우측 두 번째가 서재필, 우측 앞이 윤치호)

갑신정변발생 (1884년 (음)10월 17일) , 미국공사직원인 알렌은 뮐렌도르프의 요청으로 민영익을 치료함.

“알렌은 이전까지 조선에서 이루어지던 어떠한 한방 치료와도 구별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서양 외과 의술로 밤새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다. 우선 자상을 깨끗이 소독하고, 꿰맨 후 붕대를 감았다. 머리의 출혈 부위는 명주실로 봉합하여 지혈시켰다. 다른 부위의 상처도 깨끗이 소독해 스펀지로 감싼 후 붕대를 감아 출혈을 막았다.”

세브란스병원의 탄생

- **제중원 (광혜원):** 1885년(고종 22년) 2월 29일 현재 헌법재판소자리에 건립
- **1886** - 3월 29일 선발된 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이 실시
- **에비슨**-1893. 7월 새로 부임하여 제중원의 정상화를 위해 운영권을 미북장로교 선교부로 넘길 것을 요구하였고 갑오개혁 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짐. 제중원은 정부와 관련을 끊고 1897년 운영권이 선교부로 완전히 이관됨
- **1900** - 에비슨은 미국에서 만난 세브란스(L.H. Severance) 씨로부터 병원 설립 기금 45,000달러를 기부받아 1904년 남대문 밖 북송아골 (현재 서울역 맞은 편 세브란스 빌딩 자리)에 병원을 세움.
- **1908** - 체계적의학교육으로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를 부여받음
- **1917** -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로 인가됨. 당시 일제에 의해 운영되던 관립 의료기관이나 학교와는 달리 세브란스는 유일하게 조선인을 위한 병원이자 의학교육기관이었으며 **1967년 언더우드**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와 합병되어 연세대학교가 됨



03



04



세브란스



에비슨



서울역 앞 세브란스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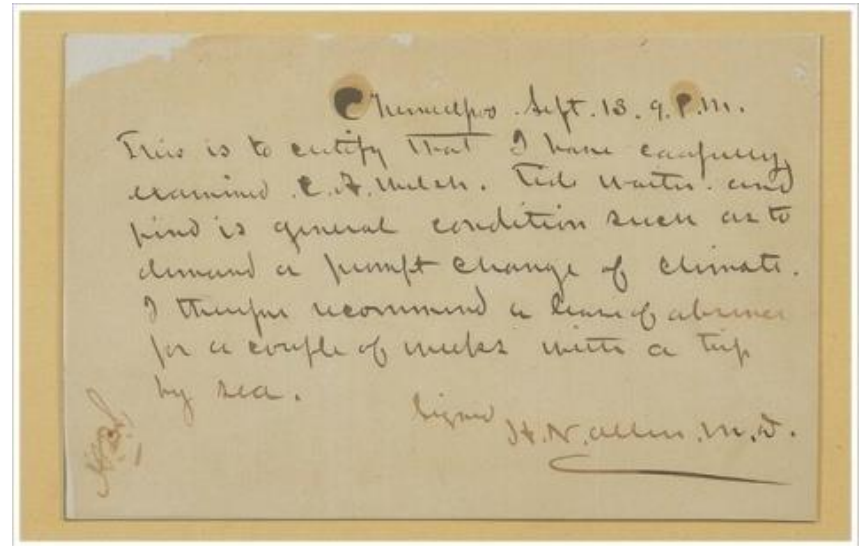
02 1884년 3월27일(을력)자 한성순보에 실린 논설. 각 황구에서의 학당(西塾學堂)을 설립하여 조선인 양의(洋醫)를 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03 개원 당시의 제중원 모습. 본래 갑신정변을 주도한 홍영식의 집이었으나, 정변 실패후조선정부에 귀속되었다. 고종과 조선 정부는이집을 제중원 부지로 정했다.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자리에 해당한다. 04 1886년 10~11월경 고종과 조선 정부는 제중원을 구리개(지금의 서울시 을지로 입구)로 옮겼다.



Dr. 에비슨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장면 (1904년경), 박서양 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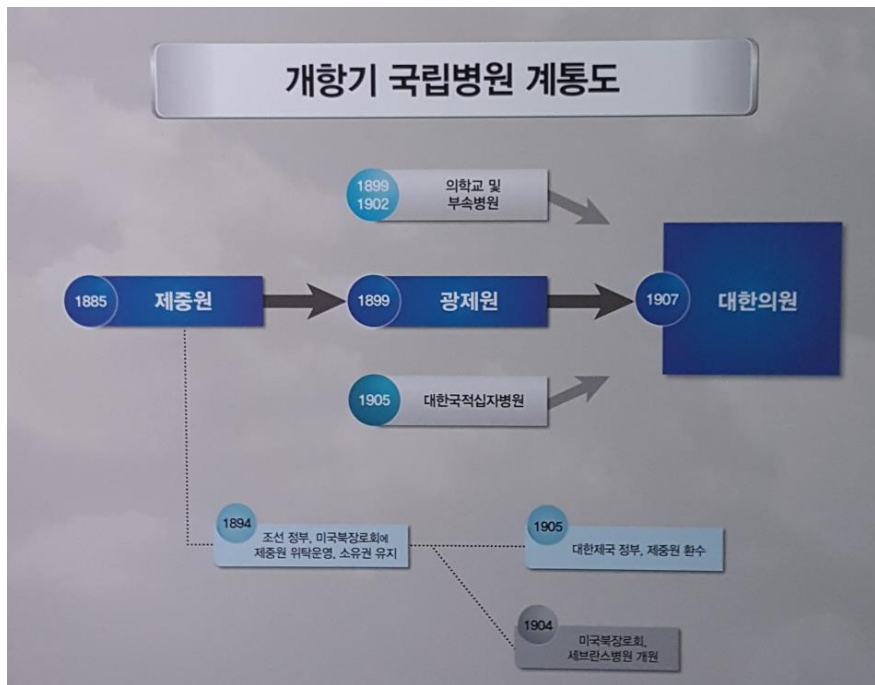
1908년 세브란스 첫 졸업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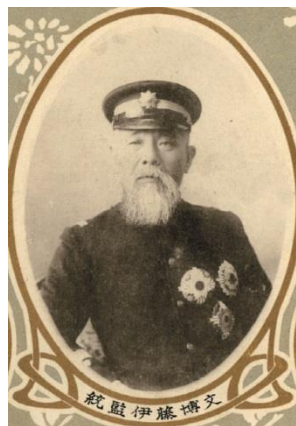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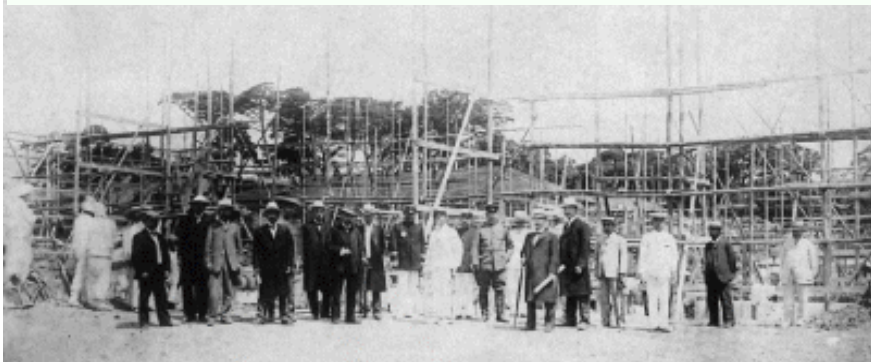
호러스 뉴턴 알렌(1858~1932)이 1885년 9월 13일 해관(海關·세관)의 외국인 직원 웰시에게 떼어준 것으로, 1~2주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지석영, 김익남과 의학교(국립병원)설립



(大韓醫院, 1908: 8)



醫 學 校 附 屬 病 院

의학교와 부속병원

의학교는 1899년 3월 24일 학부지금의 교육부에 해당 소속으로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 국립 의학교육기관으로, 훈동현 관훈동 김홍집 집터에 위치하였다. 3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학교는 5회에 걸쳐 총 54명대한의원 시절 졸업한 18명 포함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무급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었다가 1904년부터는 주로 군의로 임명되었다. 초대 교장은 우두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지식영이 맡았으며, 해부, 생리, 약리, 진단, 내과, 외과 등을 가르쳤다. 1902년에는 임상실습을 위해 부속병원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에 통합되었다.

☞ 세브란스병원

1886 - 3월 29일 선발된 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의학교육이 실시 (에비슨 등)
1908 - 체계적의학교육으로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를 부여받음



의학교 교관 김익남과 1회 졸업생 김교준



2018년 4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구내에 설립된 한국 근대의학의 선구자 김익남(1870~1937)의 동상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와 부속의원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를 표방하여 1922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선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1924년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되어 먼저 예과가 개설되었다. 1926년 본과로 법문학부와 의학부가 개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학은 근대적 대학교육의 중심 학문이 되었다. 1928년 의학부 본과생들의 임상수업을 위해 조선총독부위원이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임상연구동이 신축된 1929년부터는 의학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각 진료과별로 병동을 나누어 관리하기 시작하여 해방 전까지 약 400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하였다. 경성제대 의학부에서 조선인은 정원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입학이 제한되었다. 또 조선인들은 일본인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승진의 제약이 있어서 조교수 2명(윤일선, 고영순)과 강사촉탁 12명 외에 조선인 교수요원은 없었다. 경성제대 의학부는 16년간 314명의 조선인 의사를 배출했는데, 그들 중 김성진(金晟鎭)을 비롯한 140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연혁

1885. 4. 3. 조선 정부가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 관할로 광혜원(廣惠院) 설치(홍영식 자택, 현재의 헌법재판소 자리)
4. 26. 광혜원의 명칭을 제중원(濟衆院)으로 개칭
1894. 9. 26. 조선 정부가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 이관
1899. 3. 24. 의학교(醫學校) 관제 반포(김홍집 자택,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4. 24. '병원'(病院) 설립(경복궁 영추문 건너 증정원 자리)
1900. 6. 30. '병원'을 보시원(普施院)으로 개칭
7. 9. 보시원을 광제원(廣濟院)으로 개부표(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재동으로 이전)
1902. 6. 12. 의학교 부속병원 개원(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05. 4. 10. 조선 정부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제중원 환수(제중원 반환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07. 3. 15. 대한의원 관제 반포(광제원, 의학교와 부속병원, 대한적십자병원을 통합)
1910. 9. 2. 대한의원을 중앙의원으로 개칭
9. 30. 중앙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
1916. 4. 1.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소가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격
1924. 5. 2. 경성제국대학 설립(경성제국대학 예과 개설)
1928. 5. 28. 조선총독부의원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
6. 21.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개원식
1945. 10.17. 미군정이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칭
1946. 8. 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전이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

송촌(松村) 지식영(池錫永)

- 의학자·행정가·어학자
- 우두법(牛痘法)의 보급에 결정적 공헌
 - 1876년 수신사 일행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스승 박영선(朴永善)으로부터 종두귀감(種痘龜鑑)을 받아 종두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
 - 1879년(고종 16년) 홀로 부산에 내려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생의원에서 두 달 동안 종두법을 익힌 뒤 두묘(송아지에 접종하여 접종액을 만들어낼 원액)와 종두침을 얻어 서울로 돌아오던 중 충주에 있는 처가에 들러 2살된 처남에게 최초로 종두를 실시하게 됨.
- 1899년에는 그의 청원에 의해 최초의 관립 경성의학교와 내부병원이 설립. 교장으로 임명.
- 1900 - 광제원으로 개명 (세브란스병원 확장)
- 1907 - 의학교가 폐지되고 대한의원 의육부로 개편되면서 학감에 취임.
- 1910 - 한일합방되면서 사직.
- 1914년에는 의생(韓醫師) 등록을 하고 소아과(幼幼堂) 진료
- 1915년부터는 전선의사회(全鮮醫師會)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일제 강압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다가 1935년 2월 81세로 별세
- 주시경 선생과 더불어 한글 가로쓰기를 주장한 선구자. 1908년 국문연구소 위원으로 임명받고, 이듬해 한글로 한자를 해석한 자전석요(字典釋要)를 지음. 한편 정약용의 저술인 아학편(兒學編)을 한자와 영어로 주석하여 각 한자에 음과 훈을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교육에도 상당한 업적을 남김

勅命
正三品通政大夫
池錫永任醫學校
長叙奏任官二等
者

光武三年三月二十八日

議政府贊政學部大臣申箕善 宣



* 광무3년= 1899년 (고종 36년) 지석영선생이
관립 의학교교장으로 임명됨.

未婚妻男
種痘를試驗

그가취가을차커가는 다름이
안이라 커남되는 어닌아가마
마에 걸었다는 소리를듣고것던
것이 다 중두의대한 이야기들차
해히 들의준후 시험을하자고하
얏드니 집안의반대가 극도로심
하야 나중에는 커가에서뜻기이
나가게까지되었다 할수업시 어
실념어실념. 동우밖까지 나가라
나서 장이되는이가 잇터캐생각
하얏을진. 또차나와 지네뜻대로
하미보라고하는 말에 고만귀가
반차뛰어가지고 그길로 다시들
어가우두를 노릇다이하가 초선
의아두가 시험의도행면이었다고
후첫적이 조항동리의아이 사십의
면에게어두를 시험하게 되어차
차르의장이진고. 말이어커것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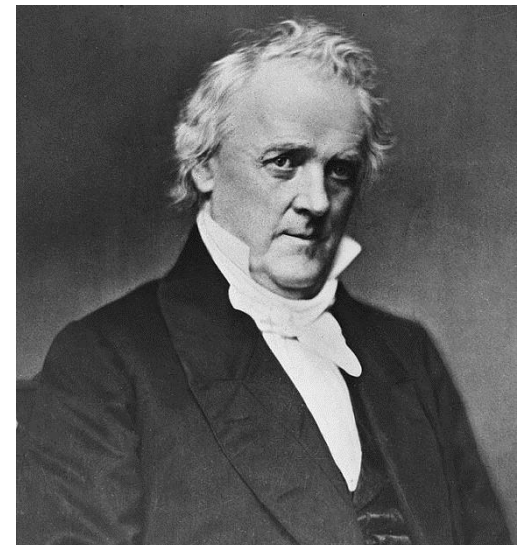


QUIZ: 우리나라의 최초의 남자 서양의사는?

답: 남자의사-서재필 (1893년 컬럼비아의과대학 야간 2등졸업)



부인 뮤리엘 메리 암스트롱



처당숙 제임스 뷰캐넌(노예해방론)

QUIZ: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서양의사는?

답: 여자의사-박에스더(1900년 볼티모어의
과대학)



QUIZ: 우리나라에서 국가 의료보험이 시작된 해는?

의료보험

[醫療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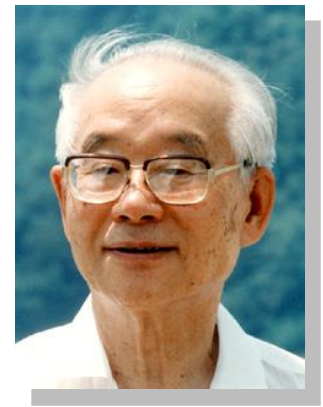
요약 사회보험의 한 분야로서 상병(傷病)을 보험사고(保險事故)로 하는 제도의 총칭.

의료보험은 1883년 프러시아에서 사회보험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실시하였고, 이어 소련·일본 등에 파급되었다. 1930년의 세계공황 후에는 미국·캐나다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1968년 장기려(張起呂)가 청십자운동(靑十字運動)을 전개하면서이며,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이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다. 그밖에 19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1989년에는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답: 1977년



한국의 슈바이처-聖山 張起呂 (1911~1995)

- 1932 - 경성의전 수석 졸업. 경성의전 병원 외과 수련(백인제교수).
- 평양 연합기독(기흥)병원장. 김일성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 강좌장.
- 춘원 이광수의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모델
- 1950 - 1.4후퇴 때 차남과 함께 피난
- 1959 - 국내처음으로 Hepatectomy 성공
- 1968 - 부산 복음병원 설립 원장. 청십자 의료 보험조합 창설. 한국 의료 보험의 모태가 됨
-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시대의 양심적인 기독교의료인 , 장미회(간질환자), 한국의 슈바이처 , 성산 생명윤리연구소, 무소유의 실천



60th Anniversary

우리 곁에 살았던 것,
장기려 박사와 한 남자의 만남...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개원 60주년 기념 초청 뮤지컬

그 사랑, 바보의사 장기려

2011. 6. 20(월) 1회 | 오후 4:30, 2회 | 7:30
고신외대 성산관

고신대학교의료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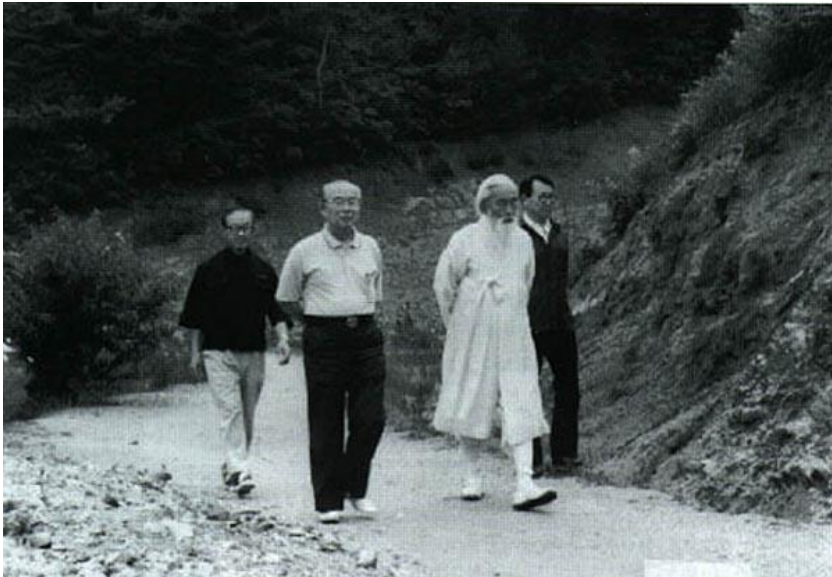
장기려 박사는?
당대 최고 실력을 갖춘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사였다.

고신대학교의료원 KOSIN UNIVERSITY SCHOOL HOSPITAL

SeongSan Center for Bioethics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1. 6. 20(월) 1회 | 오후 4:30, 2회 | 7:30
고신외대 성산관

고신대학교의료원 KOSIN UNIVERSITY SCHOOL HOSPITAL



[정의]

1968년 부산 지역의 23개 교회 단체의 대표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영자 의료 보험 조합.

[설립 목적]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가난한 환자를 구제하고, 조합원 서로가 돕는 정신을 가지며,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변천]

1956년에 조직된 성경 연구 모임의 부산 모임에서 성경 공부 외에 사회에 기여할 일을 고민하던 중 미국의 청십자 운동 등을 본받아 1968년 청십자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되었다. 창립 총회에서 장기려, 이재술, 박동식, 조광제, 서원길, 손창희, 김영환 등이 운영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은 장기려가 맡았다.

1969년 4월 28일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스웨덴으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었던 부산 의료협동조합[1969년 2월 1일 창립]과 통합하여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 되었고, 7월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자영자 의료 보험 시범 사업장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조합은 1968년 『청십자 뉴스』를 창간하여 조합의 활동을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1973년에는 조합의 명칭을 ‘청십자의료보험조합’으로 바꾸었다. 1975년에는 청십자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1979년에는 청십자의료보험조합에 회사원들이 대거 가입하여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었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의료 보험 정책이 확산되면서 1989년 6월 30일 20만 명의 회원을 국가 의료 보험에 귀속시키고 설립 21년 만에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1968년 설립 당시 부산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집한 723명의 회원에서 출발하여 부족한 회원 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1969년 2월 1만 2,000명의 회원을 가진 ‘부산의료협동조합’과 통합하여 회원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1969년 7월에는 서울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이 발족되었으며, 이후 전주, 원주, 거제도 등지로 의료 보험 조합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1974년에는 부산직할시의 지원으로 부산 지역의 영세민 5,000여 명이 가입하였다. 조합원은 병원비에 대하여 40% 할인, 조합 부담 30%, 본인 부담 30%로 운영되었다. 조합의 활동은 의료비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장례비와 분만비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 등 현재의 의료 보험 제도에 뒤지지 않을 만큼 사회 보험의 기능을 충실히 갖고 있었다.





정산 장기려 박사, 그 문의 정신을 기리며...

장기려 봉사상 청소년 체험수기 발표

전혜숙,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 김기려박사기념 불루크로스의료봉사단 | 보건복지부, 인제대학교 백병원, 고신대학교 목음병원, 주세회약품, 유송원산업, 주C



장여구 교수(손자, 인제대서울백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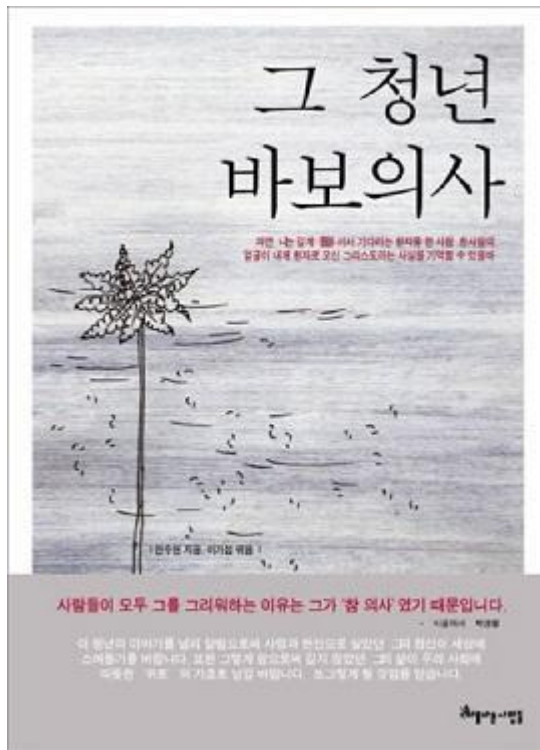


고려대의대, '그 청년 바보의사' 故 안수현 10주기 추도식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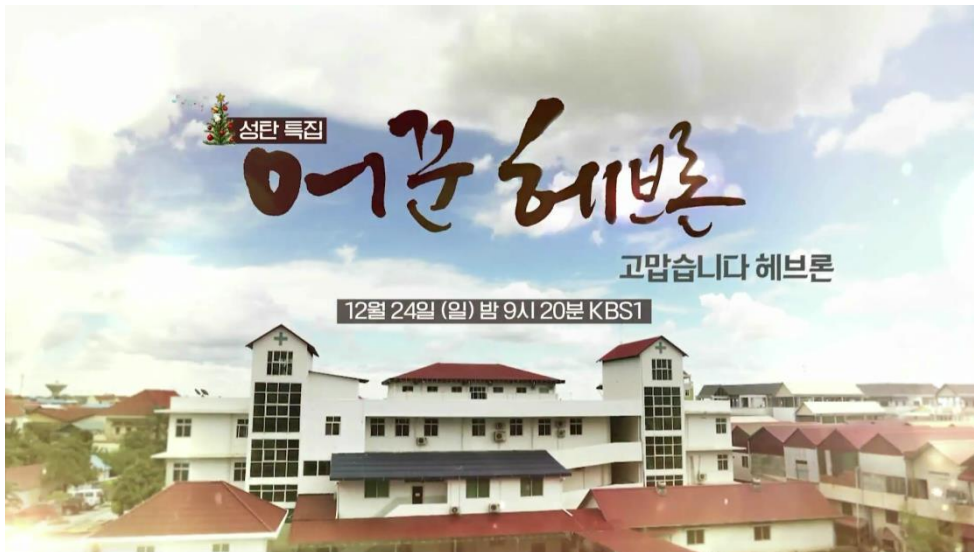
환자에게 참사랑을 실천했던 '그 청년 바보의사' 故 안수현 10주기 추도식이 지난 7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 최덕경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고려대 의대 기독교수회 및 기독교학생회, 고대병원 신우회, 안수현 장학회 등 많은 추모객이 모여 그의 뜻을 기렸다.



고대의대 91학번, 환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모범. 예흔 헬퍼십공동체, 위성방송에서 '안수현의CCM'진행. 퇴원후 생일케익선물. 군의관복무중 33세로 사망





2015년 가천의대 길병원 중국 청두 의료봉사



2016년 서울대병원 의료봉사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

서울대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수술 및 현지 의료진에 슬기 전수

이병문 기자 | 입력 : 2016.06.24 10:36:07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루스란(가명)은 생후 2개월에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았다. 의사는 루스란이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루스란은 모유를 먹지 못할 정도로 숨쉬기를 힘들어했고, 얼굴과 손에는 늘 파란빛이 돌았다. 루스란의 어머니는 양육을 거부한 남편을 떠나 친정의 도움으로 아이의 치료와 생계를 이어갔다.

한 달에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계속된 치료에도 루스란의 상태는 나아질 수 없었고, 생후 2년이 되도록 단어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발달이 느렸다. 이런 루스란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은 루스란이 3살이 되던 해였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러 집에서 자동차로 4시간이 걸리는 타슈켄트 병원을 다녔는데, 한국에서 의료진이 방문해 소아심장수술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것이었다. 당시 수술을 신청한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루스란은 2012년 5월 26일 김웅한 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교수(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부센터장)에게 수술을 받았다.

2017년 이화의료원 의료봉사 - 몽고

이화의료원, 몽골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봉사 | 의학정보

2017. 7. 18. 9:05

제6회 몽-한 국제 심포지엄 통한 학술교류



【후생신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김승철)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간 의료 봉사 와 학술 교류, 최신 의료 기술 전수를 위해 몽골을 방문한다.

박정준 흉부외과 교수를 단장으로 8명으로 구성된 이화의료원 몽골봉사단은 먼저 고비알타이 아이막과 도 르노고비 아이막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 유목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봉사단은 지역 병원들과 제6회 몽-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술 교류는 물론, 우수 의료 기술 전 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 개최된 봉사단 발대식에는 이화의료원 몽골봉사단원들과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김선중 국제협력실장 등 교직원이 참석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몽골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박정준 교수님을 비롯한 단원 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힘든 봉사 활동 기간 느낀 보람이 여러분의 발전, 나아가 의료원의 발전 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전남대병원 의료봉사 - 캄보디아

NEWS 전남대병원, 캄보디아서 심장수술 의료봉사 펼쳐

2018.01.23 08:40

추천 print scrap url

"흉부외과 정인석·김도완 교수 등 의료진 11명 "
"수도 프놈펜 헤브론 병원서 9일간 인술 펼쳐"
"선천성 심장병 환자 8명 수술...수술결과 양호"



전남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심장수술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국제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국제 협력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해당 국과의 호혜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됐다.

고려대 안산병원, 캄보디아서 소아심장수술 의료봉사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간 심장질환 소아 대상 8명 수술 30명 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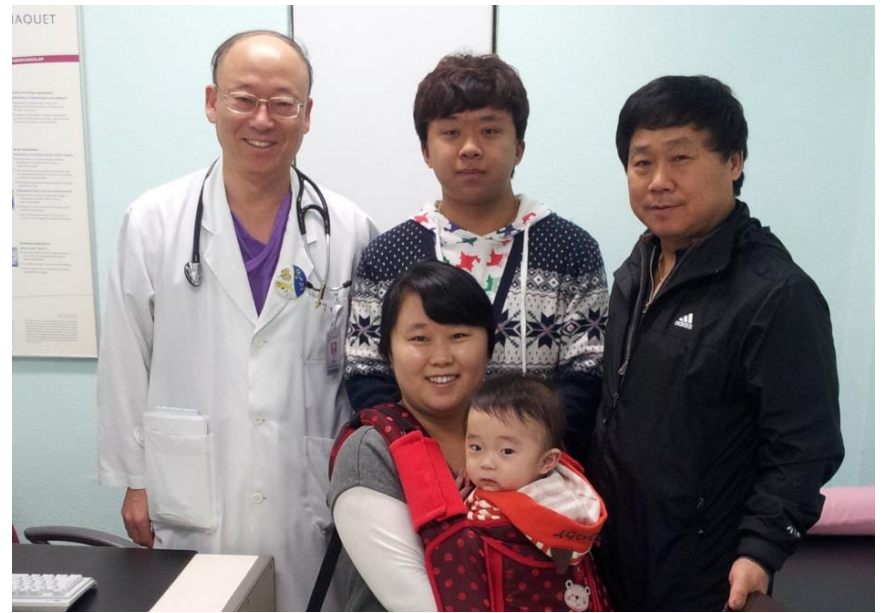
황대영 기자 hdy17@hankook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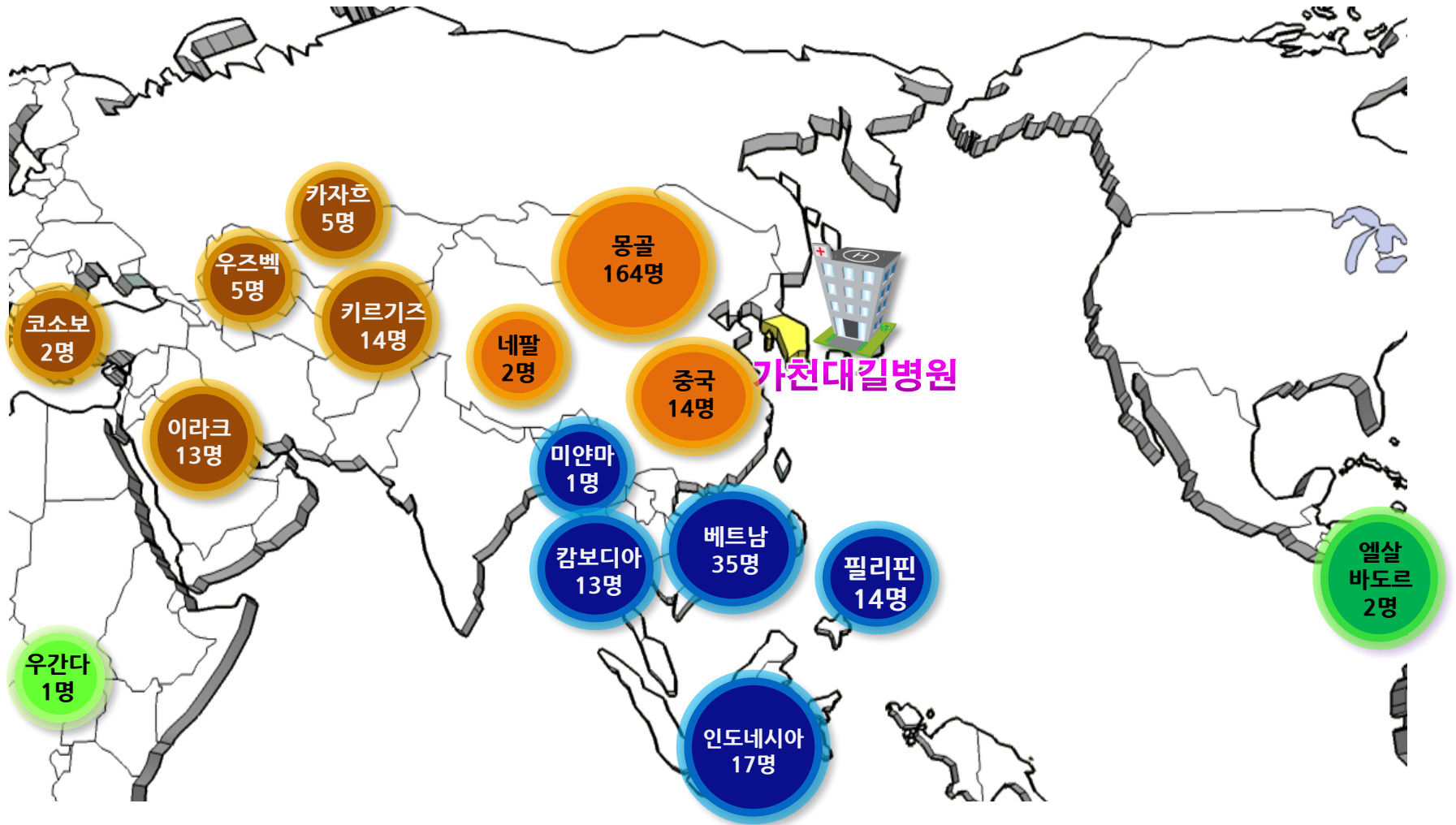
고려대 안산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사진=고려대 안산병원 제공

[데일리한국 황대영 기자]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8일간 [세계소아심장 네트워크](#)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헤브론 병원에서 소아심장수술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의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심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흉부외과](#) 신재승 교수와 [신흥주](#) 교수, [소아청](#)



초청 국가별 환자



- 푸른들 행복마을 ...

노숙인과 출소자의 특성

노숙인

- 4무 현상 : 무기력, 무능력, 무소유, 무책임

출소자

- '범죄인'이라는 낙인
- 출소 후 독립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재범 발생

알코홀

범 죄

낙 인



푸른들 행복 마을 -가족 공동체-



진행사항

*고구마 농사

*추수한 고구마는 푸른들 주식회사에서 전매하여 **너밖에 없구마** 로 상품화하여 판매.





시사 > 전체기사

고추가 풍년입니다 농사 비결은 헌신과 섬김이죠

박국양·조태레 부부 집사 노숙인·출소자 위한 '푸른들 가족공동체'

입력 : 2016-08-26 18:24



박국양(뒷줄 왼쪽 두 번째)-조태레(앞줄 가운데) 부부가 지난 24일 충남 당진 '푸른들 가족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직접 기른 고추마를 캐며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 **AFKOS 후원...**

AFKOS

(African-Korean Society)

- *한국과 아프리카의 교류를 위한 준비 모임
- *아프리카의 리더를 배출하는 단체
- *아프리카의 리더들을 통한 아프리카 각국의 사회복지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회복지의 방향 제시
- *푸른들 가족 공동체를 통한 농업교육 실시





- **하나반도 의료연합...**



OPEMU 비전

최근 글

최근 사진



제10회 하나반도의료연합 세미나



2000년 10월 30일 평양방문



2004년 5월 1일 평양방문



하나반도의료연합, '청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세미나

입력 : 2017-05-16 10:31 / 수정 : 2017-05-16 10:32

청년 통일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통일역군
모여라

2017. 5. 20(토) 2:30pm
대학연합교회 성수성전5층
(성수역 2번 출구)

✓ **주강사: 주도홍교수**(백석대 부총장)
'독일 통일, 대한민국 통일준비에 적용할 것들'

● 공연: 통일역군 합창단, 사인학교, UCC dance

● 통일역군에게 고함
유숙자(전 가톨릭간호대학 교수, 전 연변과기대교수)
이수구(전 치과의사협회회장,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김형민(대학연합교회 담임목사)

● 페닐&토의 통일준비 무엇을 어떻게?
정우석(대학연합교회)
김민효(청년연동)
최OO(탈북의사)
강OO(탈북간호사)

● 전체토론: 경쾌수(하나반도의료연합 회장)

● 퀴즈 및 추첨: Table PC3대 외

● 식사 & 분과모임

● 주최: 사) 하나반도의료연합
● 후원: 대학연합교회, CCC아가페의료봉사단, 청년한동

등록방법: 문자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
사전등록: 학생 무료, 일반 1만원
당일등록: 학생 무료, 일반 1만원(선착순)
신한은행(사단법인하나반도의료연합) 100-030-503040
(하나반도의료연합 후원자는 무료)

T: 02)575-8221
M: 010-2572-8221
E-mail: opemu@hanmail.net
www.opemu.org

하나반도의료연합(이사장 박국양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20일 2시30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학연합교회(성수역 2번 출구)에서 '제2회 청년 통일역군 모여라' 행사를 갖는다.

행사 주제는 '청년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백석대 부총장 주도홍 교수가 '독일 통일, 한국통일 준비에 적용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발제한다.

3명의 통일사역 전문가가 '청년 통일역군에게 고함'을 전한다.



박국양 교수

가톨릭 간호대 교수와 연변과기대 교수를 지낸 유숙자 교수, 전 치과의사협회회장과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이수구 총재, 청년들과 함께 대학연합교회 김형민 목사도 감사로 나선다.

하나 될 하나반도
위한 영친지도

NEW
KOREA



R U ready for New Korea?



통일부인가 사단법인

하나반도의료연합

One Peninsula Medical Union



의학교육의 3원리

- I hear and I forget
- I see and I remember
- I do and I understand

Mentoring 원리

- Don't NATO!
- Stop Talking, Start Doing!
- I do , They follows

Surgeon의 역할?

- ✓ 수술을 잘하는 것 **Good !**
- ✓ 잘 가르치는 것 **Best !**
- ✓ 좋은 책, 논문 **Excellent !**
- ✓ 좋은 Model이 되는 것 **Great !**